

주부의 자원활동(自願活動)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 김 소 영

교수 이 기 영

제 1 장 서 론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기능의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양되었으며 또한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어 온 가정 내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사회적으로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 39.3%에서 1995년 48.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6).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진 현실적 제약 하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수에 비해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에는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경제적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중 앞으로 희망하는 활동으로 자원활동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꼽은 주부가 전체 응답자 중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경애 외 3인, 1999). 또한 서울시의 경우 주부 자원활동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활동 내용도 단순한 이웃돕기 차원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추방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문화일보, 1998년 2월 6일자).

주부의 비경제적 사회활동 참여는 주부의 역할을 어머니, 아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의 일 주체로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부의 사회적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만족은 주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제활동에 비해 참여자가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다양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주부 자원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원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치거나 유희인력인 주부를 자원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이경자, 1987; 백중혜, 1995; 유연희, 1997; 김미숙, 1998)모색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서는 주부가 자원활동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가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참여를 통해 얻게 된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주부 자원활동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동기는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며 개인적 특성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1)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동기는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2-2) 주부의 참여 동기는 개인적 특성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주부의 자원활동 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자원 활동 참여 동기에 따라 자원활동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1) 주부의 자원활동 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3-2)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 동기의 수준에 따라 자원활동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주부의 개인적 특성 요인, 참여 동기 요인, 활동 관련 요인이 자원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중 현재 지역사회단체, 민간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187부가 사용되었으며, 자료 분석에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제 3 장 분석결과

제 1 절 자원활동 참여 실태

먼저 조사대상 주부가 현재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29.9%), 민간 사회단체(24.1%), 지역사회단체(11.2%) 순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단체에서 맡고 있는 활동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단순노력봉사가 31.7%, 재가복지서비스가 19.1%로 나타나 주부의 반 수 정도가 비교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 자원활동자가 맡고 있는 활동 업무가 단순 업무에 많이 치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선행 연구에서 보여진 결과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활동자가 13.1%, 전문기술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활동자가 14.8%로 비교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부 자원활동자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현재의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로는 ‘종교기관 혹은 사회단체를 통해(44.0%)’, ‘주변 친지나 친구의 권유(25.3%)’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언론 혹은 정보매체를 통해(12.9%)’, ‘스스로(2.7%)’ 참여하게 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부들은 주로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 > 활동단체 · 활동업무 내용 · 참여경로

항 목	구 분	빈도(%)
활동 단체	지역사회단체	21(11.2)
	종교단체	60(32.1)
	사회복지시설	56(29.9)
	민간 사회단체	45(24.1)
	기타	5(2.7)
	계	187(100)
활동업무 내용	단순노력봉사	58(31.7)
	상담활동	24(13.1)
	사무행정	9(4.9)
	전문기술활동	27(14.8)
	재가복지서비스	35(19.1)
	학습생활지도	6(3.3)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6(3.3)
	기타	18(9.8)
	계	183(100)
참여 경로	언론 혹은 정보매체를 통해	24(12.9)
	주변 친지나 친구의 권유로	47(25.3)
	행정기관에서 소개를 받아서	21(11.3)
	종교기관 혹은 사회단체를 통해	82(44.0)
	스스로	5(2.7)
	기타	7(3.8)
	계	186(100)

missing값에 의해 합계에서 차이가 나타남

자원활동기간을 보면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3년 미만'이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부 자원활동자의 74.3%가 현재 맡고 있는 자원활동업무를 1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활동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주부 자원활동자도 30.2%를 차지해 높은 지속도를 보이고 있다.

활동 횟수에서는 '주 1회'가 34.4%, '월3회 이하'가 32.2%이며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활동자는 10.6%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회 자원활동 시간을 보면 3-4시간이 39.6%로 가장 많았고 7시간 이상도 1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 활동 기간 · 횟수 · 시간

항 목	구 분	빈도(%)
활동 기간	1년 미만	31(17.3)
	1-3년 미만	57(31.8)
	3-5년 미만	37(20.7)
	5-10년 미만	39(21.8)
	10년 이상	15(8.4)
	계	179(100)
활동 횟수	월 3회 이하	58(32.2)
	주 1회	62(34.4)
	주 2회	22(12.2)
	주 3회 이상	19(10.6)
	비정기적	19(10.6)
	계	180(100)
활동 시간	1-2시간	39(24.5)
	3-4시간	63(39.6)
	5-6시간	39(24.5)
	7시간 이상	18(11.3)
	계	159(100)

< 표 3 > 활동업무 평가 및 동료 활동가와의 관계

항 목	구 분	빈도(%)
활동업무와 적성간의 일치 정도	매우 그렇다	33(18.3)
	대체로 그렇다	115(63.9)
	별로 그렇지 않다	31(17.2)
	전혀 그렇지 않다	1(0.6)
	계	180(100)
동료 활동가와의 관계	매우 친밀한 관계	77(41.2)
	비교적 친밀한 관계	97(51.9)
	그저 그런 관계	10(5.3)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	0(0.0)
	혼자서 활동	3(1.6)
	계	187(100)

자신의 능력·적성과 활동 업무간 일치 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가 18.3%, ‘대체로 그렇다’가 63.9%로 주부 자원활동가의 82.2%가 자신의 활동 업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료 자원활동가와의 관계를 보면 ‘매우 친밀한 관계’가 41.2%, ‘비교적 친밀한 관계’가 51.9%로 나타나 주부 자원활동자의 거의 대부분이 동료 자원활동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자원활동 참여 동기

1. 자원활동 참여 동기 요인

자원활동 참여 동기의 요인을 밝히기 위해 자원활동 참여 동기를 묻는 8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해 3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 표 4 > 자원활동 참여 동기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요인별 문항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	.82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	.67		
여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	.60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50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78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73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81
종교적 믿음의 실천을 위해			.74
고유치	1.82	1.58	1.42
전체변량 (%)	22.8	19.8	17.8
누적변량 (%)	22.8	42.6	60.4

<표 4> 에서 요인 1은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 활용, 여가 선용과 폭넓은 대인관계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를 자기개발 동기라 할 수 있다. 요인 2는 자아실현 욕구 충족, 삶의 보람 등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를 자아실현 동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인 3은 어려운 이웃돕기, 종교적 믿음 실천 등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를 이타적 동기라 할 수 있다.

요인별 고유치를 살펴보면 자기개발 동기의 값이 1.8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자아실현 동기는 1.58, 이타적 동기는 1.42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자기개발 동기는 전체 변량 중 22.8%, 자아실현 동기는 19.8%, 이타적 동기는 17.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세 요인이 전체 변량 중 60%정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5 > 요인 및 하위문항의 점수

요 인 및 하 위 문 항	평균 (요인평균/문항수)	표준 편차
자기개발 동기	10.39 (2.60)	2.45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	2.89	.87
여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	2.64	.91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	2.47	.91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2.46	.97
자아실현 동기	5.90(2.95)	1.25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3.21	.65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위해	2.70	.86
이타적 동기	5.76(2.88)	1.55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3.20	.75
종교적 믿음의 실천을 위해	2.58	1.14

먼저 각 동기요인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위의 <표 5>에 제시된 각 동기 요인의 평균값을 문항수로 나누어 보면 자기개발 동기는 2.60점, 자기실현 동기는 2.95점, 이타적 동기는 2.88점으로 자기실현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주부 자원활동자가 자원활동에 참여하는데는 자아실현 동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기개발 동기의 하위문항 중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실현 동기의 하위문항 중에서는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가, 이타적 동기의 하위문항 중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개인적 특성 요인에 따른 자원활동 참여 동기

1) 자기개발 동기

자기개발 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개인적 특성 요인은 주부 자원활동자의 연령, 막내자녀연령 등이었다.

먼저 연령에 따라서 자기개발 동기는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추후 검증 결과 연령이 39세 이하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자기개발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기개발 동기에 의해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도 자기개발 동기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으며 막

내자녀 연령이 0-9세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자기개발 동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주부는 자원활동을 통해 자기개발 동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령이 적을수록 주부는 자기개발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활동에 참여하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6 > 개인적 특성 요인에 따른 자기개발 동기 차이

변 수	집 단	평 균	DMR	F검증결과
연령	39세 이하(61) ¹⁾	11.11	a [†]	F=4.80**
	40-49세(65)	10.23	b	
	50세 이상(53)	9.75	b	
교육수준	중졸 이하(13)	10.00		F=0.93
	고졸(90)	10.21		
	전문대졸 이상(75)	10.68		
막내자녀연령	0-9세(51)	10.96	a	F=3.24*
	10-19세(63)	10.51	ab	
	20세 이상(65)	9.83	b	
종교	기독교(41)	10.68		F=1.99
	천주교(81)	10.00		
	불교(23)	11.30		
	무교(33)	10.30		

1) 빈도

† DMR 부호는 점수의 크기에 따라 알파벳 부여. 동일한 문자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 p < .05 ** p < .01

2) 자아실현 동기

자아실현 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인적 특성 요인은 주부의 연령, 막내자녀연령, 종교 등이었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개발 동기에서와 마찬가지로 39세 이하인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자아실현 동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아실현 동기에 의해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도 자아실현 동기가 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추후검증 결과 막내자녀 연령이 0-9세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자아실현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주부의 자원활동을 통해 자아실현 동기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종교에 따라 자아실현 동기가 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추후 검증에서는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기개발 동기뿐 아니라 자아실현 동기를 실현하고자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 표 7 > 개인적 특성 요인에 따른 자아실현 동기 차이

변 수	집 단	평 균	DMR	F 검증결과
연령	39세 이하(64)	6.28	a	F=6.02**
	40-49세(69)	5.84	b	
	50세 이상(49)	5.49	b	
교육수준	중졸 이하(14)	6.21		F=0.53
	고졸(91)	5.85		
	전문대졸 이상(76)	5.92		
막내자녀연령	0-9세(50)	6.17	a	F=3.18*
	10-19세(67)	5.83	ab	
	20세 이상(58)	5.75	b	
종교	기독교(44)	6.16		F=2.96*
	천주교(81)	5.59		
	불교(22)	6.14		
	무교(34)	6.12		

* p < .05 ** p < .01

3) 이타적 동기

이타적 동기의 경우에는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종교에 의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별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이타적 동기의 평균값이 유의수준 0.001에서 높게 나타나 종교가 있는 경우 이타적 동기가 자원활동 참여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기개발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는 주부의 연령과 막내자녀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이타적 동기는 주부의 종교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표 8 > 개인적 특성 요인에 따른 이타적 동기 차이

변 수	집 단	평 균	DMR	F 검증결과
연령	39세 이하(63)	5.54		F=1.12
	40-49세(67)	5.82		
	50세 이상(52)	5.96		
교육수준	중졸 이하(15)	6.20		F=1.96
	고졸(89)	5.89		
	전문대졸 이상(77)	5.51		
막내자녀연령	0-9세(51)	5.35		F=2.63
	10-19세(67)	5.99		
	20세 이상(64)	5.86		
종교	기독교(43)	6.16	a	F=12.51***
	천주교(80)	6.15	a	
	불교(24)	5.58	a	
	무교(34)	4.47	b	

*** p < .001

제 3 절 자원활동 참여동기에 따른 활동 만족도

1. 자원활동 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주부의 자원활동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살펴보았다(<표 9> 참고).

분석 결과 자원활동 만족도 점수는 19점에서 40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값은 30.1점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값을 4점 척도²⁾상의 점수로 환산해 보면 3.01점 이므로 조사대상자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자원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존재감 확인’과 ‘개인적 성장의 계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평균값이 전체 평균값(3.01)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은 ‘여가 선용에 도움’, ‘자신의 잠재된 능력 확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확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등 4문항이었으며 이 중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자원활동 만족도를 측정하는 4점리커트 척도를 구성할 때 ‘매우 그렇다’에 4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 표 9 > 자원활동 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N=181)

		평균 (4점 척도상)	표준편차
자원활동 만족도		30.1(3.01)	4.29
하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3.26	.53
	자신의 존재감 확인	3.25	.67
	개인적 성장의 계기	3.23	.63
위	새로운 경험·지식 습득 기회	3.09	.65
	생의 활기와 자신감 획득	3.08	.61
영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제	3.04	.68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확인	2.91	.70
역	여가 선용에 도움	2.85	.76
	자신의 잠재된 능력 확인	2.70	.82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2.68	.70

2. 참여 동기에 따른 자원활동 만족도

제 2 절에서 살펴본 참여 동기 요인에 따라 자원활동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추후검증으로 DMR-test를 실시하였다(<표 10> 참조). 이 때 참여 동기는 평균과 표준편차($\bar{M} \pm 1/2 SD$)를 고려해 동기가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등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자기개발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이타적 동기 등 3가지 동기 요인 모두가 자원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개발 동기, 자아실현 동기를 보면 각각의 동기가 높은 집단이 중간이하의 집단에 비해 자원활동 만족도가 유의수준 0.00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타적 동기의 경우 이타적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자원활동 만족도가 0.05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주부가 자원활동에 참여하는데 자기개발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이타적 동기가 강할수록 자원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도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표 10 > 참여 동기 수준에 따른 자원활동 만족도 차이

변 수	집 단	평 균	DMR	F 검증결과
자기개발 동기	높은 집단(58)	32.40	a	F=15.18***
	중간 집단(84)	29.38	b	
	낮은 집단(36)	28.45	b	
자아실현 동기	높은 집단(41)	33.56	a	F=20.94***
	중간 집단(81)	29.14	b	
	낮은 집단(55)	28.98	b	
이타적 동기	높은 집단(58)	31.33	a	F=4.08*
	중간 집단(84)	29.87	ab	
	낮은 집단(36)	28.89	b	

* p < .05 *** p < .001

제 4 절 자원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원활동 만족도에 관련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에는 개인적 특성요인과 참여 동기, 활동 관련 요인을 포함시켰다.

개인적 특성 요인에는 주부의 연령, 소득, 교육수준, 종교, 가족원의 지지 등 5개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참여 동기에는 자기개발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이타적 동기 등 3가지가 포함되었다. 활동 관련 요인에는 활동업무 내용, 활동업무 평가, 동료 자원활동가와의 관계 등 3개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자원활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원의 지지, 자기개발 동기, 자아실현 동기, 활동업무에 대한 평가였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2.3%였다. 즉 가족원의 지지가 많을수록, 자기개발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가 강할수록, 그리고 자신의 활동 업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자원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자원활동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변수는 자신의 활동 업무에 대한 평가($\beta=.247$)이며 가족원의 지지($\beta=.233$), 자기개발 동기($\beta=.230$), 자아실현 동기($\beta=.189$)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개인적 특성 요인 중에서는 가족원의 지지가, 그리고 참여 동기 중에서는 자기개발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가 자원활동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관련 요인 중에서는 활동업무 평가가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주부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활동업무를 배정할 때 주부의 자원활동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1 > 자원활동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b	β
개인적 특성 요인	연령	.046	.094
	소득	.004	.086
	교육수준	-.140	-.092
	종교	.199	.018
	가족원의 지지	.449**	.233
참여 동기	자기개발 동기	.396*	.230
	자아실현 동기	.652*	.189
	이타적 동기	.038	.014
활동 관련 요인	상담·사무 활동	.040	.004
	전문기술활동	1.47	.103
	활동업무 평가	1.69**	.247
	동료 활동자와의 관계	.051	.007
상수			18.33
R ²			.323
F값			8.07***

* p < .01, ** p < .05, *** p < .00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 동기 요인인 자기개발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이타적 동기 각각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자아실현 동기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자원활동이 주부에게 단순히 남을 위한 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 결과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아실현 동기에 의해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젊은 주부일수록 이타적 동기보다는 이기적 동기가 자원활동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활동 관련 기관에서 주부의 이기적 동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아실현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음에서는 주부의 자원활동 만족도를 높여 주부들이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원의 지지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주부가 참여하고 있는 자원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 동기가 자원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개개인이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동기, 욕구에 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동시에 그러한 동기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신이 맡고 있는 활동업무에 대한 평가가 자원활동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므로 해당 기관의 자원활동 담당자는 주부 자원활동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들을 계량화하여 정확히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표본조사방법과 심층면접, 참여 관찰 등의 질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주부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참여 후 그 동기 실현 정도, 그리고 자원활동 참여가 개인에게 가져다 준 의미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혀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주부 관련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주부 관련 특성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조사 대상자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표본수의 문제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주부 자원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앞으로는 대상의 범위를 일반 주부로 넓혀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관련 특성을 비교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부가 자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이 연구는 현재 여러 다양한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자원활동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알아본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애 · 김종미 · 이재인 · 박진경 (1999). 주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여성민우회.
- 김미숙 (1998).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혜 (1995). 주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연희 (1997). 고학력 주부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 (1987). 기혼 여성인력활용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1996). 한국의 사회지표.